

◇CarboMedics 판막의 10년 임상성적

박창률, 이종태, 이웅배, 장봉현, 김규태

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

배경 및 목적 : CarboMedics 판막은 국외에서는 1986년부터,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이식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판막의 중단기 성적은 저자들이 이미 지상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에 10년 임상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.

방법 : CarboMedics 판막을 이용하여 판막치환술을 받은 226[평균나이 39세, 남녀 성비 92 대 134]명의 연속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총 272개의 판막이 이식되었으며 승모판막 199개, 대동맥판막 70개, 삼첨판막 3개였다.

결과 : 전체 추적기간은 16848 환자-월[평균 76개월]이었고 추적률은 95.5%였다. 술전에 149명이 뉴욕심장병학회 기능 분류 3기와 4기에 속하였고, 술후에는 204명[99.5%]이 1기와 2기에 속하였다. 병원사망은 11[4.76%]명이었고, 만기사망은 21[9.29%]명이었다. 전체 집단에서 생존환자의 중간값인 81개월까지의 생존률은 86.17%였다. 판막관련사망, 항응고요법에 따른 출혈, 비구조적기능 이상, 인공판막의 혈전, 심내막염, 재수술 등의 linearized incidence는 각각 환자-연당 각각 0.71%, 0.43%, 0.07%, 0.21%, 0.21%, 0.14%였다. 81개월까지 판막관련 사망이 없을율은 95.31%, 인공판막의 혈전이 없을율은 98.07%, 항응고요법에 따른 출혈이 없을율은 97.70%, 비구조적 기능 이상이 없을율은 100%, 심내막염이 없을율은 99.30%,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을율은 98.70%였다. 81개월까지 병원사망을 포함한 모든 판막관련 합병증과 사망이 없을율은 88.09%였다.

결론 : 장기 추적검사에서 CarboMedics 판막은 판막에 관련된 합병증이 적었고, 구조적 기능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.

책임저자:이종태(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)

발표자:박창률(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)